소외이웃 만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권, 명절 맞이 나눔실천 '훈훈'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 두번째)이 김창선 인왕시장 상인회장(첫번째) 등 관계자와 포즈를 취했다. /KB국민은행

금융권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중은행과 각 지역은행 등 금융권은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사랑 실천 등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펼쳤다.

KB국민은행 온누리상품권으로 생필품 등 구입해 소외이웃에 전달
우리금융 구세군에 '희망상자' 기증
NH농협은행 농산물 나눔활동 전개
BNK부산은행 저소득가정에 선물

KB국민은행은 10일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왕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인왕시장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윤유선 기아대책 후원자 등이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고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매년 2회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입한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사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약 40억원 상당의 물품을 총 6만5000여 가구에 전달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가구당 6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45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허 행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9년째를 맞이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가 상인분들께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 등으로 채워진 '우리(WOORI) 희망상자'를 지난 9일 구세군에 전달했다. 우리금융그룹 본점에서 열린 우리 희망상자 전달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 등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우리 희망상자 지원 사업은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을 맞아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제철 과일과 간편식 등으로 채워진 우리 희망상자를 명절 분위기를 누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희망상자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우리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의 지역 경제 지원 활동은 전국 22개 지역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기업투자금융부문이 서울 마포구 소재 삼동소년촌을 찾아 '추석 맞이 우리농산물, 송편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해 생활관 청소와 유아돌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한 송편과 우리 농산물을 기증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9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저소득가정 670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복(福)꾸러미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 참석한 1000여명의 부산은행 임직원은 퇴근길을 활용해 저소득가정을 방문했다. 쌀·미역·참기름 등 생필품 13개를 담은 선물세트를 직접 가정 내 전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추석 안부 인사를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오른쪽 두번째)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추석물품을 구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위

은성수 첫 행보는 서민금융… 전통시장 방문

〈금융위원장〉

상인 애로사항 듣고 민생방안 점검

금융위원회는 10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은 위원장은 과일·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물가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시장을 찾은 서민과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담직원들도 격려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융 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진옥동 "신한 소호, 자영업 지원 종합 플랫폼"

〈신한은행장〉 〈SOHO〉

'신한 소호 성공지원센터' 개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은 자영업자와 은행이 상생하는 관계형 금융의 현장 착근을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별관에서 열린 '신한 소호(SOHO) 성공지원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은행권의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685여 만명으로 일자리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윤 원장은 "새내기 사장님들은 창업한 업종에 대한 지식부족, 경영노하우 습득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땅히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곳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은행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는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서 열린 '신한 소호(SOHO) 성공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한 소호 성공지원 센터'는 경영 관련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경영·상권·창업 관련 상담과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성공한 자영업자의 1대 1 멘토링과 함께 신한 소호사관학교,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인별로 맞춤 지원한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서 운영하던 컨설팅 센터와는 달리 신한 소호사관학교 수료 고객 중 경영 개선에 성공한 자영업자가 직접 멘토로 참여해 실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 원장은 "이번에 새로 문을 여는 3곳의 '신한 소호 성공지원센터'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응급상담체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선배 자영업자로 구성된 멘토단이 사업장 운영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는 것이야 말로 후배 자영업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로써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의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신한 소호사관학교,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등을 통해 비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이번에 오픈하는 '신한 소호 성공지원 센터'는 자영업자 경영 지원에 대한 종합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앱 설치없이 모바일명세서 조회하세요"

신한카드 '간편조회 모바일명세서'

신한카드는 '간편조회 모바일 명세서'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간편조회 모바일 명세서 발송 서비스는 우편으로 받는 명세서 실물과 동일한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받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본인의 생년월일 인증만으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 앱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모바일 명세서보다 편리해졌다.

신한카드는 간편조회 모바일 명세서 홍보를 위해 우편 명세서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편과 모바일 명세서를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간편조회 모바일 명세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혹은 신한카드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교보생명, '3·1운동·임정 100주년' 대국민 캠페인 마무리

교보생명은 지난달 진행된 유관순 열사 래핑 기념 댓글 이벤트 결과 현대 사회에서의 진정한 독립은 '전 국민의 화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자의 31%가 '전 국민의 화합을 통해 우리 민족 모두가 잘사는 행복의 땅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30%), 강한 국력을 갖추는 것(27%), 각자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1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답변도 눈에 띄었다.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 비전을 계승하는 것', '역사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선열의 뜻을 받드는 것' 등이 진정한 독립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교보생명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올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3.1운동 100주년 맞이 '남상락 독립운동가의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한 '독립운동가 9인 래핑', 광복절을 기린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 래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뜻깊은 해를 기념했다. /김희주 기자 hj89@